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성경말씀: 눅8:40-56

주님의 생애의 여러 사건: 복된 소식을 선포하신다. 사람을 살리신다. 병, 마귀, 죄
지난 주: 주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가버나움에서 배타고 서쪽의 게르게스(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가심, 군대 마귀 들린 사람: 더럽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짐승처럼 산다
마귀가 하는 일: 하나님의 형상 파괴, 예수님의 말씀에 마귀들이 돼지 떼로 들어가 역사함.
그러자 그가 옷을 입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을 섬김. 같이 있고 싶어 함. 결국 돌아가 소식 전파
그리스도인의 특징: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생각함, 그래야 바르게 살고 바르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

배경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 사람들이 환영함(40). 학수고대, 인파 속에 어린 딸로 인해 고통당하는 남자와
병으로 기진맥진한 여자가 있다. 돌아오자마자 이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신다(눅4:18).
남자의 이름은 아이로, 여자는 모른다. 남자는 부자, 양반, 여자는 의사들에게 돈을 다 쓰고 가난함.
아무 소망도 없음, 남자는 자기 딸을 위해, 여자는 자기를 위해
여자아이는 12살, 아이로에게 큰 기쁨,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 말 그대로 피땀하기 그지없다.
믿음이 다 미약하다. <미약한 믿음도 예수님이 받으신다>

혈루증 여인

여자의 문제: 12년 동안 혈루증, 재산 허비(43), 유대인들의 의식법 규례에 따라 부정함(레15:19-22).
종교 행사 및 교제 불가능, 심히 곤고하고 낙심이 되어 죽을 지경, 주님께 와서 필요를 채움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고치는 것을 보고 들었다. 이분은 고칠 수 있으리라는 생각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함, 거의 미신적인 믿음(44; 마9:21).

그런데 종교적으로 부정함 여인, 사람들에게 갈 수 없음. 그래서 몰래 다가감.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도 수용해 주심: 얼마나 딱하면 이렇게라도 고침을 받으려 하는가?
교리가 부정확함, 더러움, 멸시 천대, 가난함, “예수님만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소망이 없어 낙담한 가운데 필사적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수용하심.
우리 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 교회 간증 시간에 보면 성경적 교리와는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분도 더러 있다(은사 체험 등).
그래도 나는 이해하려고 한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다.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된다. “내 죄 병, 내 영혼의 병, 내 몸의 병을 예수님만 완전히 고칠 수 있다.”
구원 이후에 자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킹제임스, 삼위일체,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환난 전 휴거 No!
구원 이후에 자란다(벰전2:2).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고

그러므로 새 성도, 새 신자 모두 참아주고 기다려야 한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 성경 공부, 교제, 섬김 등, 새 사람들도 성장할 의무가 있다.
우리 주님의 반응: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45), 제자들의 반응(45), 주님의 말씀(46)
주님이 정말로 모르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다. 혹시 이것은 여인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을까? No!
다만 주님은 그 여인이 자기의 믿음을 표출하기를 원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셨다.

여인의 반응(47), 주님의 말씀(48)

공개적인 고백의 결과: 이 여인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의 메시지를 받음
무리와 여인 비교: 말 그대로 벌떼처럼 밀려드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한다.
아니 그분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연약함의 감정을 가지고 손을 댄다.
히4:15, 직역하면,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여인처럼 그분께
손을 대야 한다. 우리 믿음이 미약해도 손을 대면 그분께서 수용하신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처럼 인생이 힘들고 답답할 때 주님께 가야 한다. 아이들, 젊은이들

아이로

지금 아이가 거의 다 죽어감. 예수님을 직접 초빙함(41).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나 귀중한 시간을 빼앗음. 속이 타는 데 다행히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음

회당의 치리자: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 회당 등장, 공예배, 기도, 성경 낭독, 설교, 회당 관리 등 회당에는 장로들이 있었다. 그는 보통 공부도 많이 하고 재물도 있었다.

베드로의 집(장모의 집)은 가버나움에 있던 것으로 보임,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으나 예수님을 배척함, 예수님의 저주(마11:23), 소돔과 비교, 아마 아이로가 이런 일을 주종했을지도 모른다.

유대교의 수장이 지금 몸을 굽혀 예수님께 딸을 고쳐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 그러나 자기 딸의 죽음 앞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갈릴리 목수에게 와서 머리 숙여 간청한다. 놀라운 자체 재산, 지식, 명예, 권세 등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구원은 오직 창조자 하나님에게서만 온다. 아이로는 지금 마지막 끈나풀을 잡으면서 혹시 예수님이 생명의 창시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생각을 내려놓고 간청함 이 사람의 믿음도 매우 미약하였다.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미약한 믿음

주님의 수용: “오직 주님만 살릴 수, 고칠 수 있다는 믿음”, 이 미약한 믿음을 수용해 주신다.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여인이 나타나 시간을 잡아먹고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음(49).

그의 친척들과 친지들의 생각: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50): 1. 두려워하지 말라. 2. 믿기만 하라, 3. 네 딸이 낫는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 갈 바를 모를 때,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담대한 심정으로 주님께 가야 한다.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제 생명이 주님께 달렸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집에 갔는데 사정이 좋지 않음: 유대인들의 장례는 가능하면 하루에 끝내야 함 직업적으로 우는 사람들 고용(52),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이들은 더더욱 믿지 않고 비웃음(53).

그 이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모른다(요11:25-26). I am that I am(출3:14). 예수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 1차원적인 사고, “예수도 사람이다”, 생사화복의 주님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영이 떠난 것을 잔다고 하신다. 성도의 죽음은 잠에 지나지 않는다.

몸이 잠을 잔다. 혼과 영은 떠나서 움직인다. 하나님께 대해 모두 살아 있다(아브라함, 이삭 등).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평범한 일이다. 잠의 필요성

어느 면에서 매일 부활 연습, 100세까지 살아야 36,500번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잠에서 깨어나고, 몸이 다시 일어나 영혼육이 결합된다.

더 좋은 것은 죽지 않고 아예 휴거되는 것이다.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꿈(막5:41; 욥바, 행9:40의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안 일어나는가? 나사로의 경우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벌떡 일어난다. 주님은 누구인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계1:17-18)

곧바로 소녀에게 영이 돌아오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먹는다.

부활은 영적 죽음에서 사람들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하다: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 아이로의 딸, 나사로(요11), 1. 죽은 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 일어난다. 2. 일어나면 말하고 걷고 무언가를 좋아하고 야단법석이다. 즉 숨기려야 숨길 수 없다. 나무로 말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결론

예수님의 삶에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매우 바쁘게 하실 일을 하신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섭리: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영어 Providence Pro, video, 미리 본다. 하나님이 가다라 지방의 마귀 들린 자, 아이로, 그의 딸, 혈루증 여인 미리 보시고 예비하신다. 우리 성도들의 삶, 믿음의 시작은 미약하나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섭리로 인도하신다. 롬8:28, 찬송가 363장

1.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면 근심에 싸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